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

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배포일시 : 2.2(금), 11:20)

담당 과장	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 박종원 (044-203-4320)	**담당자**	임채욱 서기관 (044-203-4327) 위승복 사무관 (044-203-4321)
	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 이재평 (044-201-3847)		김진후 사무관 (044-201-3848) 김창기 사무관 (044-201-3934)

미래차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전략 마련

-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전기차 개발, 충전소 대폭확대로 전기차 시대 조기개막 -

- 핵심기술개발 · 스마트 인프라 집중구축으로 2022년 완전 자율주행 기반마련 -

- 미래차 분야, 향후 5년간 민관합동 35조원 투자, 금년 3,500명 채용 -

□ 정부는 2.2.(금) 10:20, 판교 기업지원 허브에서 자동차 관련 산·학·연 관계자 50여명과 함께 **'미래차 산업 간담회'**를 개최했다.

○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전기·자율차 등 미래차 시장에서 **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마련**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**'미래차 산업 발전전략'**을 보고했다.

○ 국토부는 **2020년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**와 **2022년 완전자율주행 기반** 마련을 위한 **구체적 실천계획**인 **「자율주행 스마트교통시스템 구축방안」**을 보고했다.

< 보고 주요내용 >

(전기차)

□ 우선, **전기차의 약점인 주행거리와 충전문제**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.

○ 1회 충전으로 **서울에서 부산까지**(500km 이상) 문제없이 달릴 수 있는 500km 이상 **전기차**와 **속도**가 **2배** 이상 빠른 충전기술(슈퍼차저)을 개발한다.

- **급속 충전소**도 대형마트 등 주요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매년 1,500기씩 설치해 '22년에는 전국 주유소(1만2천개)와 비슷한 수준인 **1만기까지 확충**한다.

○ 금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**조기 소진 시 추가 예산 확보**를 추진하는 한편, 내연차와 가격차를 감안해 '22년까지 보조금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.

○ 이와 함께, 환경개선 효과가 큰 **버스, 택시, 소형트럭 등을 전기차로 집중 전환**을 추진한다. 금년 중 **5개 내외의 지자체를 선정**, '19년부터 연평균 10%씩 교체해 **'30년까지 100% 전기차로 전환**한다.

○ 아울러,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, 전기차 저장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사업(V2G, Vehicle to Gird) 등 전기차 기반 서비스 실증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.

(자율차)

□ **자율주행 기술력 확보**를 위해 핵심부품 국산화, 전문인력 양성, 표준화를 추진한다.

○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라이다, 영상센서 등 **핵심부품**을 **국산화**하고, 5G 기반 자율주행 통신기술도 개발한다.

○ 석박사급 연구개발(R&D) 전문인력 양성 규모를 작년 4개 대학에서 올해 7개 대학으로 확대하는 한편, 자율주행 국가표준도 '17년 93종에서 '21년 200종까지 확대하고, 국제 표준 논의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.

□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**세계 최고** 수준의 자율주행 시험대(**테스트베드**) '**케이-시티(K-City)**'를 **올해 내**로 **완공**하여 국내외에 개방한다.

* 32만㎡ 규모로 고속도로, 도심, 교외, 주차시설, 커뮤니티의 5개 실제환경 재현(화성)

○ 초고속·대용량 **5G 통신시설**을 함께 구축하며, 향후 **눈·비·안개** 등 **기상재현시설**도 설치해 **케이-시티(K-City)**를 **고도화**해나갈 계획이다.

○ 한편, 다양한 상황·환경의 **주행정보를 공유**하는 **데이터센터**도 **올해 내로 구축**하여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**딥러닝 기술개발**을 촉진한다.

□ 실제 도로에서 기술성능과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평가할 수 있도록 **대규모 자율주행 실증단지**도 **조성**한다.

○ 금년 중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해 2곳 내외에 각종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, 추후 관련 인프라 구축과 기업·연구소 유치도 추진한다.

□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**스마트 인프라**를 **전국 고속도로** 등에 구축하여 **완전자율주행의 기반**을 마련한다.

○ **2022년**까지 **전국 고속도로 5천km**를 **스마트화**해 실시간으로 **주변 정보**를 **자율주행차에 제공**하고 **차량간 통신**을 가능하게 한다.

- 또한 **서울·제주를 시작**으로 **주요 도심**에도 스마트도로를 구축해 앞으로 **자율주행 대중교통** 및 **공유경제** 도입을 준비한다.

○ 자율주행의 **기초자료**가 되는 **정밀도로지도**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**전국 고속도로, 주요 도심 등 5,500km**를 **2020년**까지 조기 구축한다.

* 정밀도로지도는 계획부터 최종제작까지 민간과 함께 구축하고 있으며, 현재까지 제작된 약 1,350km 구간은 약 290여개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.

- 첨단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도입 후 일반차량과의 **안전한 교통관리**를 위해 **실시간 교통관제시스템**도 구축할 계획이다.

(시범·실증사업)

□ **평창 동계올림픽** 기간 중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**자율주행 시승행사**를 시작으로, **국민이 체감**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.

○ **6월**에는 서울 **영동대로·강남운전면허시험장**에서 자율주행차의 **면허시험코스 통과** 및 **자율협력주행 시연·시승**행사를 열고,

○ **10월**부터 **인천공항 제2터미널**부터 **장기주차장**을 연결하는 **자율주행 셔틀버스**도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.

○ 올해 10월 대학생 **자율차 경진대회**를 실제 도로에서 개최하고, 자율주행 택배(20년), 교통약자 호출·이동 서비스(21년) 등 **다양한 서비스 모델 실증**도 착수한다.

□ **국가 연구개발(R&D)**를 통해 **올해부터 2021년까지** 자율주행을 활용한 새로운 **교통시스템**을 단계적으로 **개발·실증**한다.

○ **올해**는 **서울대 캠퍼스** 내에서 **자율주행 관제·운영시스템**을 실증하고, **'19년**에는 **경부·영동고속도로**에서 **트럭 군집주행**을 시연한다.

○ 또한 **'20년**에는 **세종시(스마트시티)** 등에서 **미니셔틀버스**를, **'21년**에는 **수도권·고속도로** 등에서 **자율주행버스**를 운행할 계획이다.

(신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)

□ **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** 미래차 분야로 신규 진입하는 '뉴플레이어'(New Player)를 **발굴·육성**하고, **미래차 기반 서비스 산업을 본격 육성**한다.

○ 우선, 정보기술(IT) 등 혁신기업도 **미래차 분야**에 뛰어들 수 있도록 '**자동차 제작 서비스 전문기업**'을 육성한다.

* 자동차 제작서비스 전문기업이 생산 대행 → 생산 노하우가 없는 IT기업 등도 자동차 산업 진입 가능

○ 개방형 전기·자율차 플랫폼을 개발해 중소·벤처기업에 제공해 전기·자율차 부품개발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○ 완성차사 등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'**모빌리티 스타트업 챌린지**'를 하반기 중 개최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·지원한다.

* 미래기술 수요제시 → 아이디어.기술 시연대회 → R&D 및 혁신창업펀드지원 → 제품.기술 구매

○ 완성차사, 정보기술(IT)·벤처기업 등이 참여하는 **'커넥티드 서비스 얼라이언스'**를 운영하는 한편, 차량 상태정보 등 **빅데이터 센터를 구축**('18~'19)해 미래차 기반 신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.

□ 스마트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**자율협력주행 산업을 활성화**하고 관련 **업계가 동반성장**할 수 있도록 **민관 협업체계**를 구성*한다.

* 자동차·통신·전자·지도 등 다양한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 발족 예정('18.2)

○ 이를 통해 **통신단말기** 공동개발, **정밀도로지도** 공동구축 등 다양한 **기술과 서비스**를 **함께 개발**하고, **스타트업·강소기업**을 육성한다.

□ 한편으로, **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**이 미래차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**사업전환과 경영여건 개선**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.

○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과 정보기술(IT) 기업간 교류·협력을 촉진하고, 혁신 모험 펀드 등을 활용해 사업재편·인수합병(M&A) 등도 지원한다. **고경력 퇴직자 에이터베이스(DB)를 구축**해 미래기술 수요에 대한 기술지도와 상담 지도(멘토링)도 실시한다.

○ 아울러, **협력이익 배분제**를 도입하는 한편,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배배상 강화검토, 납품단가 인하를 위한 원가정보 요구금지 등 대·중소기업간 **불합리한 거래관계를 개선**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자동차 업계 노사신뢰 회복을 위해 금속노조, 자동차 산업협회,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**노사관계 연구회 발족**('18)도 측면 지원한다.

□ 정부는 지난 1월 「**규제 혁신 토론회**」를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**시험운행허가 간소화** 등 **자율차 규제혁신 과제**를 조속히 추진하고, **상용화**에 필요한 **안전기준·보험제도**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.

□ '22년까지 향후 **5년간 미래차 분야에 민관합동**으로 **35조 원 이상**을 **투자할 계획**이며, 올해 전기·자율주행차, 초소형 전기차, 배터리, 서비스 등 미래차 분야에서 **3,500명**의 **일자리를 창출**할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위승복 사무관(☎ 044-203-4321),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김진후 사무관(☎ 044-201-384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